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의 건축문화

《한국의 건축》 펴낸 윤장섭 교수



윤장섭 교수.

건축은 꿈의 공간이다. 예술의 꿈과 과학의 공간이 만나 건축을 이룬다. 우리 민족의 ‘꿈의 공간’으로서 ‘한국의 건축’을 바라보고 읽어내고 깨달어간 윤장섭 서울대 명예교수(71,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의 건축》(서울대출판부)은 50여년 한국건축 연구의 총결집이다.

원시부터 조선까지 건축전통 정리

“이번 책에서는 주제성과 일관성 있는 한국의 건축사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건축문제의 해결방법과 건축양식의 특성도 살폈지요. 특히 북한의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과감히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국건축의 전통을 온전히 밝히는 데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이 책이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윤교수는 《한국건축사》(동명사, 74)와 《한국건축연구》(동명사, 83)의 저술로 각각 한국출판상과 한국과학기술도서상을 받았다. 이번 책은 건축문화의 시대구분 문제 같은 일반론에서부터 원시시대에서 고대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국건축양식의 발전과정과 시대마다 다른 도성계획과 궁궐건축, 불사·주거·정원건축들에 대해 고찰하면서 방대한

“이번 책에서는 주제성과 일관성 있는 한국의 건축사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건축문제의 해결방법과 건축양식의 특성을 살폈지요. 특히 북한의 연구성과는 과감히 참조했습니다. 아직 한국 건축의 전통을 온전히 밝히는 데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이 책이 그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건축의 문화 특성을 밝히고 있다. 470여컷에 이르는 풍부한 그림자료 또한 한국 건축의 특성을 돋보이게 한다.

어린 시절 유난히 잔병치레가 잦았던 윤교수는 활동량이 많은 건축학을 해보라는 형님 의견을 따라 무심히 건축의 길에 들어섰다. ‘한국의 건축’에 발길을 멈춘 것은 MIT공과대학에 유학하던 시절. 프린스턴대의 오스카 스토노로프 교수 집에 초대받아 머물며 《건축의 도(The Tao of Architecture)》라는 책을 소개받아 깊은 충격을 받은 때부터다. 건축 디자인 원리를 노자 《도덕경》을 인용해 논술한 그 책을 읽고 우리나라 건축에도 한국 고유의 철학과 종교사상의 독특한 결합이 스며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규장각과 장서각을 드나들기 시작, 윤교수가 쌓은 연구업적은 ‘한국 건축’ 분야에서 하나의 전거로 자리하고 있다.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멋

“한국의 건축은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큰 맛을 겸하고 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기름진 땅을 지닌 환경 속에서 한국의 건축은 자연과 잘 조화된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지요. 위치 선택에서부터 자연의 지세를 제압하거나 경쟁하는 방향으로

건축이 시도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시공방법에서도 인위적인 기교를 쓰기보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배려했지요.”

기둥 아랫부분을 보면 자연 형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인위적인 것이 적으니 어수룩하면서 순박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장대하지 않으니 중압감을 주기보다 아담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특성은 중국의 거대한 건축 규모와 천변만화한 표현장식, 일본의 단순 정교하고 담백한 건축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종교의 영향도 크다. 특히 불교의 내면적이며 현세에 집착하지 않는 적요한 아름다움은 한국 건축에서 손꼽히는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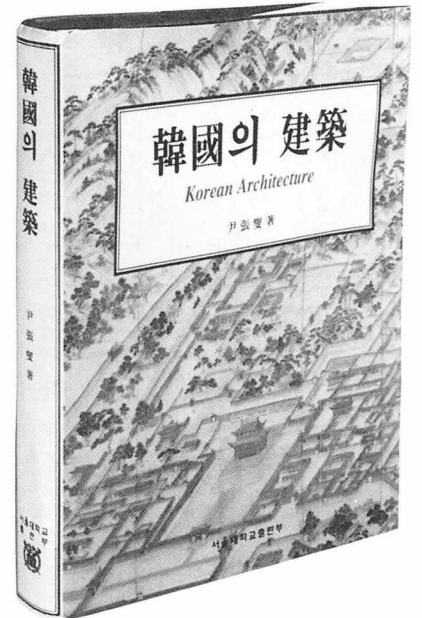
한국 건축의 구조는 주로 목재를 사용한 가구식(架構式)이다. 기단에는 내압력이 많은 석재를, 기둥과 보는 내력이 좋은 목재를, 벽체는 석재, 지붕은 기와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붕 형태는 아주 장중한데, 주요 건물은 주로 팔작지붕이 사용됐다. 지붕 처마는 3차 곡선을 이루는데 그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처마끝에 놓는 막새기와는 연화문 같은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건축문화의 세련됨을 돋보이게 한다.

윤교수는 한국의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예를 몇가지 든다. 통일신라시대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 세밀한 건축의장 계획과 통일성 속에 변화 있는 공간구성, 정취 있는 건물외관 등 건축기술과 조형예술 정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한국 최고(最古)목조건축인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는 궁궐건축이 뛰어난데, 경복궁의 장려한 규모와 섬려한 건축수법이 장점이다.

정성 깃든 건축의 전통 살려야

이렇듯 과학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우리의 건축문화가 최근 맥을 잊지 못하고 있어 윤교수는 안타깝다. 전통을 살린다고 시멘트와 철근 구조물로 불사를 재현한다든가, 무조건 크게만 지어 자연과 부조화를 이루는 대응전을 짓는다.

“지난해 ‘삼품 참사’도 건축에 대한 애정 어린 주인의식이 없던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디자인도 그를 실행하는 사람



들에게 정직함과 성실함,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없다면 비극은 당연한 귀결이지요. 온 정성을 다해 건축물을 세웠던 옛 선인들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로 조선시대 수원성 축성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1796)를 든다. 축성 계획은 물론 건축절차와 물자내역, 못의 수와 목수 이름, 문양 그림, 심지어 준공잔치 때 모인 사람들 수와 음식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다. 3년 걸린 축성 내용을 5년에 걸쳐 정리한 그 꼼꼼함은 놀랍기만 하다.

윤교수가 직접 설계한 정릉의 아담한 2층 집에는 우리의 전통적 건축미가 물씬 묻어 난다. 서울대 종합 캠퍼스 계획과 국회의원회관 건립위원으로 활동했던 윤교수의 가정은 건축가 집안이다. 슬하의 2남2녀 중 맏아들 재신씨(한국주택공사 연구소)와 맏딸 재옥씨(호서대 건축학과 교수), 큰사위 강철구씨(동우건축 대표)가 모두 건축계에 몸담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몸에 밴 새벽기도를 위한 4시반의 기상과 74년부터 시작한 테니스가 철순 노학자로 하여금 젊음을 붙잡게 했나 보다. ‘한국의 건축’을 더욱 탄탄히 세우기 위해 또다른 자료를 들춰보는 윤교수의 눈빛이 아직도 청년이다.

— 김지원 기자